

# 고창군, 활력 있는 마을 만든다

### 61억원 투입...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선사맛체험 마을네트워크 구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올해 61억원을 투입해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육성사업과 선사맛체험 마을네트워크 구축,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 등을 추진해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마을을 만들어간다고 9일 전했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상하면 강선달마을(신

자동, 구시포, 서당마을)에 국비 15억 등 총 사업비 30억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강선달 마을에 도시 방문객들의 농촌체험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사업으로 올해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농가레스토랑 등 체험시설 마련과 농촌관광 실무지역중 교육 등을 추진한다.

‘선사맛체험 마을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향토음식과 역사, 문화 등 개발을 통한 농촌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생마을 만들기사업’과 이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조성사업’은 6억을 투입해 마을공동체 동아리 활동과 경관 개선 등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고유의 문화와 전통 자원을 활용해 사람 찾는 농촌을 만들어 ‘삼락농경’을 실현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촌전통생활 문화체험 명소화사업’은 총 사업비 20억을 투입해 산림면 일원에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관과 전통장류공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전통문화 체험 중심지로 육성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4대 구입 의결

임실군은 지난 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개최하고 농가 수요를 반영해 3개 기종 4대 기계 구입을 의결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회(위원장 장일문 농업기술센터소장)’는 농업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및 기계 구입을 위한 기종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이번 심의회는 시설원예 및 감자와 파 재배 농가 수요를 적극 반영해 하우스 전용 트랙터와 로터리, 소형 관리기 등 3개 기종 총 4대 기계 구입을 심의·의결했다.

손현두 위원장은 “농사일의 필수품인 농업기계를 임대해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농업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편의를 위해 국비와 군비 70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부터 임대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22종 총 75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중부, 남부, 서부, 북부의 4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437농가를 대상으로 6,119대의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영농철은 휴일에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농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한기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며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을 점검해 고장을 즉시 해결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돈 버는 농업, 함께하는 희망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신입생 환영식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본부장 박재만)는 9일 회의실(에바다 건물 3층)에서 신입생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은 신입 부분부장으로 박해신, 김대용, 오인수, 신임 이사로 성기창의 30명을 선임하고 사업계획 토의 및 운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만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 누구보다 임실인의 긍지를 살리고 임실사랑에 앞장서며 ‘강하고 힘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여’라는 애향운동의 이념과 가치로 고향사랑 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애향운동본부는 부분부장으로 윤병택, 이형남, 최용덕, 장일수, 임현자, 박길수, 정인준, 박해신, 김대용, 오인수 총 10명을 선임했으며 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일자리창출 양성교육

남원시는 지역행복생활권(남원·순창·임실) 연계협력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오픈·오프마켓팅 과정, 창업과정, 소규모구축 과정’을 개설하여 9일부터 5월 17일까지 13주에 걸쳐 총 2시간의 교육을 남원시청 전산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은 소규모 또는 대규모 기업회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중심의 창업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마이스(MICE)산업은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 농·특산물 유통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수강생들은 본인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과 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 법규, 세무 등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경찰, 의무위반 예방 간담회

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 9일 남부권(금지·주생·수지·송동·대강과출소) 직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감사관 주관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상반기 인사이동으로 각종 모임 및 회식 등 술자리 증가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의무위반 사례와 함께 직장생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남원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지구대·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의무위반 예방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황종택 서장은 “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먼저 술선수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무위반 없는 남원경찰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나서

### 30% 감량 목표... 분리배출요령·실천사항 홍보물 각 가정에 배부

순창군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군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군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증가해 연간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짬밥줄이기 범군민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이 보다 가깝게 받아들이기 위해 잔반을 나타내는 군대용 어인 짬밥이란 용어도 사용했다.

군은 우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과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부해 군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발적인 주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단체와 의식업 조합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가정에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와 소형 감량기를 보급하고 아파트 단지에 RFID(무선인식) 개별계량 종량기 확대 설치, 집단급식소에 음식물 처리기 시범 설치사업도 진행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순창군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군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군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나갈 계획이다. 군 공무원부터 실천에 앞장선다. 구내식당 내 음식물 수거통을 치우고 전 직원이 먹을 만큼의 밥과 반찬을 덜어먹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식당에도 국과 반찬을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또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를 만들어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친환경에

너지 타운 조성사업도 검토 중이다. 이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열·전기 등으로 에너지화 하는 바이오가스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약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시설 전 공정을 밀폐식 시스템으로 민원이 적어 최근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

### 5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남원의 위상에 걸맞게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가지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2015년 국비가 지원되는 700억 규모의 공공하수도 효율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자체 기본설계에 이어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 차집관 공사과 분류식 관로 사업으로 병행 추진된다. 사업비 총 700억원 중 180억원이 1차년도인 올해부터 투자되고,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7억원중 2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동 태평지구와 산내 원천지구 47억원이 투입되어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리산 뱀사골 지역과 산동면 소재지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금지 용천, 수지 호곡, 아영 월산지구 140억원을 투입해 660가구 1,800여명 하수처리 수혜를 받게 된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수시설 등이 계획상 있게 추진되어야만 후대에 비용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다”며 “2018년도 하수관련 신규 사업으로 남원하수 3단계사업, 서도흔분분회관 하수처리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품을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

임실군은 직업훈련, 통번역 서비스, 마을학당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16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나들이’를 지원한다.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지원 사업’은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9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심민군수, 김경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권 전달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6가정에 항공료 및 현지교통비 등 5,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달부터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 고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방문교육, 행복플러스 사업, 학비 지원 등의 정책에 노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